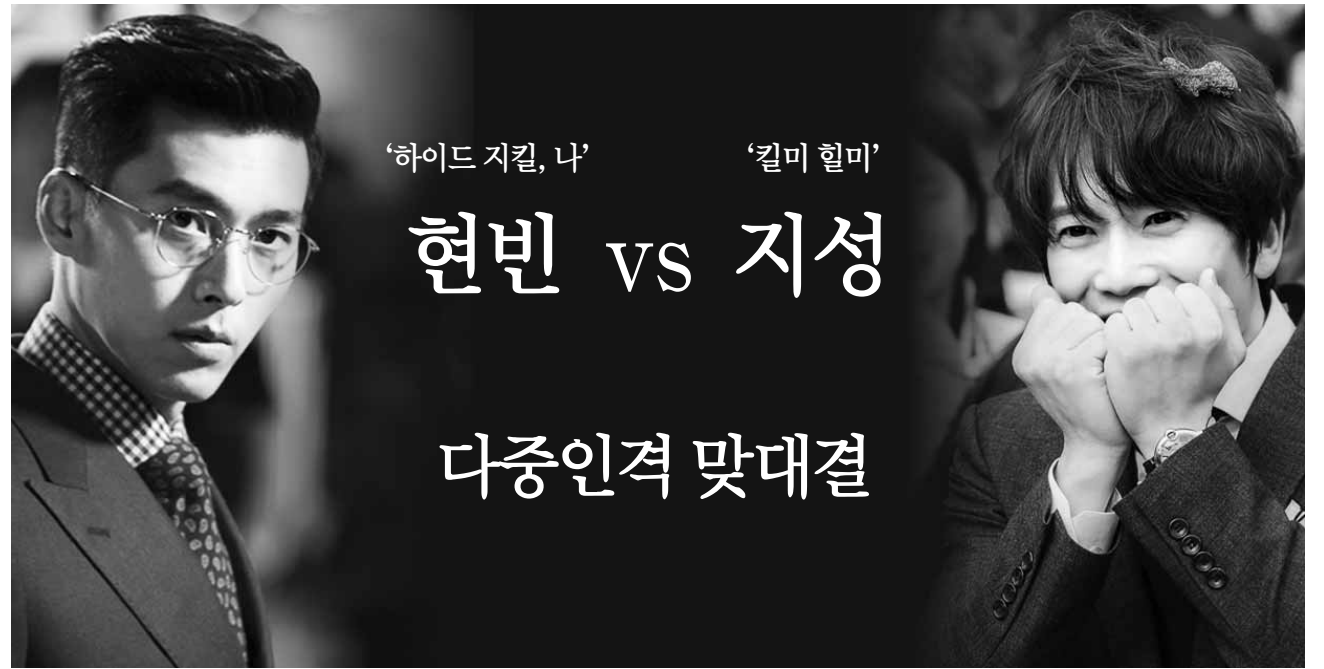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욕정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0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튼생활제초	40 결혼이야기(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하늘에서 본 부산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5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30 화천기행(재)
1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주영(재) 55 TV동화 빨간 자전거(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20 헬로킴지 공룡이 살아있다2(재)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2 00 직언직설	00 시간여행자 K(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추적 60분(재)	05 내꺼야 풀록 25 동물가족 체험기 50 울딩 패밀리아(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 4 10 다큐 공감(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TV 유자원 공대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아>(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정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타빙 매카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이재 만나러 갑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갈때까지 가보자	00 KBS 뉴스 7 30 2015 KBS광주 어린이 협창단 정기연주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달라라 잠미>
8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결혼이야기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스포츠	00 월화드라마 <힐러>	00 월화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SBS 대기획 <편지>
11 10 나는 물신이다(재) ①:20 채널A 일요기획(재)	00 KBS 뉴스라인 40 생방송진전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롬메이트
	30 독립영화관 <섬바람>(상)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글로벌레포츠 쇼 ①:30 영상앨범쇼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①:05 자기야



‘하이드 지킬, 나’ ‘킬미 힐미’
현빈 vs 지성

다중인격 맞대결

지성, 팔색조 연기 “변검 보는 듯”... 현빈, 닳은 듯 다른 역할에 부담감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가 되면 안방극장은 두 남자가 내뿜는 열기로 달아오른다. SBS TV ‘하이드 지킬, 나’의 현빈(33)과 MBC TV ‘킬미, 힐미’의 지성(38)이 그 주인공이다. 현빈이 맡은 구서진과 지성이 분한 차도현은 둘 다 공교롭게도 다중인격자다.

현빈 캐스팅설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던 ‘킬미, 힐미’가 결국 지성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도 극을 이끄는 두 배우의 연기에 눈길이 가는 요인이다. 7가지 인격을 소화하기도 버거운 텐데 시정를 1위를 지켜내느라 분투할 지성과 5년 만의 복귀작이라는 점과 관세 역전의 부담감에 시달릴 후발주자 현빈, 두 배우의 연기를 뜯어보는 재미가 적지 않다.

◇어쩔 이리 닳았다...차도현과 구서진 = ‘킬미, 힐미’보다 2주 늦게 방송을 시작한 ‘하이드 지킬, 나’는 강한 기사감을 풍긴다. 똑같이 로맨틱 코미디에 멜로를 버무린 두 작품의 많은 부분이 겹치는 탓이다.

연예기획사 ID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차도현과 복합테마파크 원더랜드 상무인 구서진은 모두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재벌가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어릴 적 아주 깊은 상처를 입은 뒤 돌이상의 인격이 있는 해리성 정체장애(다중인격장애)를 앓게 됐다.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가문의 암투 때문에 자신의 병을 속 시원히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외롭게 싸운다는 점도 같다. 차도현 근처에는 육촌형 차기준(오민석 분), 구서진 근처에는 사촌형 류승연(한상진)이 ‘범의 아가리’를 벌린 채 주인공들의 동태를 살핀다. 차도현과 구서진이 그나마 의지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보필하는 비서(안 실장·권 비서)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온 주치의(석호필 박사·강희애 박사)다. 과거 상처와 연관된 여자주인공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다른 인격들의 출현 혹은 강화를 촉발하는 ‘트리거’로 작용한다는 점도 두 남자 주인공의 공통점이다.

◇변검 뺨치는 ‘킬미, 힐미’...만개한 지성의 연기력 = “한 연 기자가 7개 캐릭터를 기막히게 소화했다는 것이 과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지성의 지난 5일 제작발표회 발언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낮추려는 방책이었을까.

1999년 SBS TV ‘카이스트’로 데뷔해 벌써 연기 경력 17년 차인 지성의 연기력은 ‘킬미, 힐미’에서 만개했다. 지성은 극 중 상처 많은 도련님 차도현과 과격하고 뇌쇄적인 신세계, 구수한 전라도 남자 페리 박, 어린 아이 나나, 자살을 시도하는 음울한 고교생 안요섭, 날라리 사생팬 안요나, 아직 베일을 벗지 않은 Mr.X 등 7개 인격을 부여받았다.

인격을 능수능란하게 넘나드는 지성의 연기를 보다 보면 소 매 폭을 한번 휘저어 때마다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중국 기예인 변검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킬미, 힐미’가 눈만 어지러운 드라마가 아닌 데는 아이러니가 아닌 안정 등 외양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격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는 지성의 연기가 큰 몫을 한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격들의 출연 분량을 늘려달라는 애청자들의 요구들이 잇따른다. 지성에게 출연료를 7배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자주 눈에 띈다.

◇아직은 ‘어게인 시크릿가든’...부담 큰 현빈 = ‘하이드 지킬, 나’가 지난 21일 밤 베일을 벗었을 때 주인공 구서진은 현빈의 전작인 ‘시크릿 가든’(2010) 속 백화점 CEO 김주원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구서진을 꼼꼼히 뜯어보면 김주원 같은 ‘상처 많은 까다로운 재벌남’을 넘어 병적으로 예민하고 날이 선 모습이다. 다른 인격의 출현을 막고자 죽을 힘을 다해 수도승처럼 살았던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현빈의 계산이다.

‘킬미, 힐미’와 비교하면 ‘하이드 지킬, 나’의 남자 주인공 인격은 구서진과 로빈, 2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빈이 짙어진 부담은 적지 않다. ‘킬미, 힐미’의 7개 인격은 저마다 개성이 뚜렷해서 연기자가 격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반면 구서진과 로빈은 다른 듯하면서도 많이 닳았다는 점에서 현빈의 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킬미, 힐미’에서는 지성의 팔색조 변신에 시선이 쏠린다면 ‘하이드 지킬, 나’에서는 현빈이 아버지 구명환(이덕화)에 애증을 느끼는 로빈을 표현하는 모습에 관심이 간다.

구명환과 마주 선 로빈이 허상의 존재라기보다 찬밥 신세인 서열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흥미롭다. 이처럼 로빈이 구서진의 제2인격이 아닌 동등한 주제로 다가오면서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둘의 대립과 공존이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현빈이 장교 선택한 ‘하이드 지킬, 나’의 시정를은 좋지 않다. 지난 29일 방송은 ‘킬미, 힐미’ 시청률(11.5%)의 반 토막에 가까운 6.6%로까지 내려앉았다.

다른 인격이 최대로 저지른 일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차도현과 구서진은 최근 여자 주인공들과 동거를 시작했다. 차도현과 구서진이 각각 정선과 의사 오리온(황정음)과 서커스 단장 장하나(한지민)의 도움으로 조금씩 변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게 되는 과정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후발주자인 ‘하이드 지킬, 나’가 이제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두 배우 중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극한직업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홀리비어	20:40 다큐 오늘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살라말라! 모로코>
07:15 뉴미디어 구조대 보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팔공산>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뉴미디어 구조대 보잉	21:50 EBS 다크프라임 <한국인과 영아>
07:45 고파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굼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걸문록 아틀라스 <태평당 심문화 기행>
08:20 두다디(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8:50 굼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30 고파비스 타요(재)	
09:05 원더볼츠(재)	14:10 스포츠 웨어어 놀자	17:45 두다디(재)	
09:20 출동! 슈퍼원즈(재)	14:30 부릉! 부릉! 부루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영의 국어>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0:50 <오광석의 수학 I>	13:05 <윤정환의 영어>
01:40 <오랜지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02:30 수능김집이<문학>	14:50 <추혜연의 영어>
03:20 <수학 I>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6:30 <유종현, 윤선영의 국어>
05:00 <영어특해 유형>	17:20 <오광석의 수학 I>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7:30 <차현우의 미적분II>	19:20 <최은진의 수학 I>
08:20 <구명석의 화학과 통계>	20:00 <김소연의 수학II>
09:10 <독서와 문법>	20:50 <추혜연의 영어>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21:50 수능김집이 <구명석의 화학과 통계>
10:50 <최은진의 수학 I>	22:50 리얼체력 탐 <최은진의 수학 I>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00 2016 수능개념 <추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30 검정고시교육 강좌	16:50 한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방>
09:00 출제문 수학 EBS MATH	17:20 백점공강 중학수학2 <국어5⑥>
09:10 TV 중학 <수학1(상)>	18:00 TV 중학 <국어5⑥>
10:30 <역사>	18:40 <수학3(상)>
11:10 <국어3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1:50 <수학2(상)>	20:00 EBS 기획특강 <영어3>
12:30 실전 취업가이드	20:50 EBS 기획시리즈 <국어5⑥>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수학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영어3>
13:50 <수학2>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영어3>
14:30 <사회2>	22:40 <국어5⑥>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3:20 필독 <사회1>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24:00 원기초 중학 <수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3일(음 12월 15일 庚戌)

子	48년생 도전에 불만을 가지기 충분하다. 60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72년생 무난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84년생 재물이든 좋아질 것이나 기회가 오면 의심하지 말고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02, 56	午	42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국면이다. 54년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66년생 예상치 못했던 데서 자질이 빛날 수 있다. 78년생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0, 84
丑	49년생 복잡다단했던 일이 늦게나마 정리 될 소지가 크다. 61년생 뒤처지던 많은 부자영이 생길 것이다. 73년생 오랜 인연을 맺게 될 이가 보인다. 85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6, 82	未	43년생 관계가 건조해 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55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7년생 임시방편적인 처리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79년생 노력 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08
寅	38년생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50년생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주리라. 62년생 기대하여 왔던 이가 실망을 줄 수도 있다. 74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으니라. 86년생 다양한 기회와 조건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4, 92	申	44년생 한 발씩만 양보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 56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8년생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80년생 인내는 곧 보람의 열쇠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21
卯	39년생 무방해했다. 51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리라. 63년생 물고기가 흩날려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 이라다. 75년생 집착하면 할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다. 87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5, 28	酉	45년생 기초와 바탕이 건실 해야겠다. 57년생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세 그대로이니 일반적인 판단을 해도 된다. 69년생 핵심을 짚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81년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4, 53
辰	40년생 완전히 뒤바뀔 수다. 52년생 건너아할 강에서 때때추어 나룻배가 다가오는 격이다. 64년생 변화를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을 국면을 연출한다. 76년생 화르르하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눈에 띄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9, 51	戌	46년생 자기 스스로 처리했을 때 가장 잘치고 보람 있었다. 58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을 챙겨야 할 때이니라. 70년생 고난이아 말로 삶을 단련시키는 스승이니라. 82년생 현명하게 살펴본다면 시련에 들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90
巳	41년생 장고할 후에 판단할 일이니라. 53년생 상대의 절실한 요청이 있을 것이니라. 65년생 상대의 제시에 성의를 다해서 응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77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83, 19	亥	47년생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진면목을 묵도하게 되리라. 59년생 성급하게 임한다면 막힘이 많으니라. 71년생 흥정의 기운이 넘치니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83년생 상대의 의사에 따르는 것도 관찮다. 행운의 숫자 : 91, 4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배운 것도 섭섭한 것도 많았죠”

영화 ‘강남1970’ 건달 백용기역 김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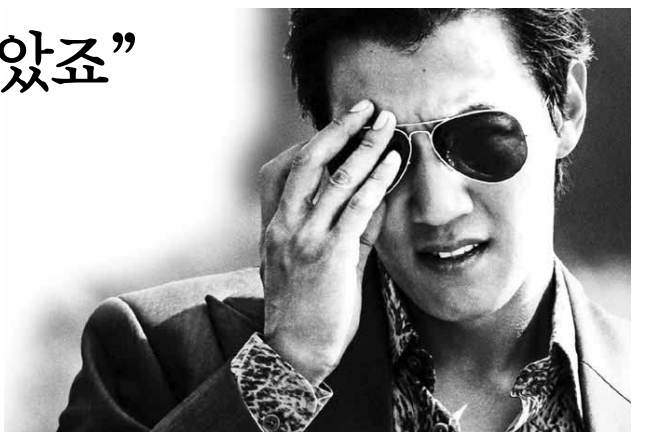
배우 김래원(34)이 지난 21일 개봉한 영화 ‘강남1970’에 대해 “배운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은 영화”라고 말했다.

김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실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SBS TV 월화극 ‘편지’와 영화 ‘강남1970’을 나란히 선보였다. ‘편지’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박정환 검사 역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는 ‘강남1970’에서는 욕망을 위해 배신도 서슴지 않는 건달 백용기를 연기했다.

팬들은 그가 오랜만에 드라마와 영화를 동시에 선보여 반가워하고 있다. ‘편지’는 웹메이드 드라마라는 호평 속에서 현재 월화극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강남1970’은 개봉 5일째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김래원은 “백용기는 배신의 아이런인데 편집이 많이 됐다. 그냥 단순한 악역이 아닌데, 백용기를 설명해주는 부분



들이 상당히 편집되면서 그냥 악역이 된 느낌이다”며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며 연기한 부분들이 삭제돼 아쉽다”고 말했다.

백용기는 고아원 출신으로 남미를 주무며 생활하다 우연히 건달패에 끼어 상경한 뒤 조직의 ‘남버2’에 오른 것도 모자라 보스의 여자를 탐하고 보스 자리를 노리는 인물이다.

김래원은 “유하 감독님도 내가 섭섭해하는 거 알고 계시다”며 “하지만 영화에 대한 미련은 없다. 배운 것도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정석·거미 “우리 연인됐어요”

배우 조정석(35·오른쪽 사진)과 가수 거미(본명 박지연·34)가 새로운 연예계 커플로 탄생했다.

거미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일 “두 사람이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이성으로 발전해 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활동 분야는 다르지만 조정석이 뮤지컬 배우로 오랜 시간 활약해 음악에도 관심이 높아 음악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조정석은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조정석은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출연했으며 최근 전지현의 소속사인 문화창고로 이적했다. 거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투어 콘서트를 마쳤다. /연합뉴스